

한화테크윈, 고해상도 보안 카메라로 필라델피아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플라자의 안전 지켜



글로벌 시큐리티 기업 한화테크윈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호위츠-와스어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플라자(Horwitz-Wasserman Holocaust Memorial Plaza)’에 와이즈넷(Wisenet) 영상보안 솔루션을 설치, 선명한 영상과 다양한 지능형 분석 기능으로 각종 보안 사고의 방지 및 대응을 돕고 있다.

Challenge

필라델피아 심장부에 위치한 호위츠-와스어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플라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념함과 동시에 지난 아픈 역사에 대해 방문객들을 교육하고, 나아가 다시는 이런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필라델피아 경찰청 산하 기관 ‘델라웨어 밸리 인텔리전스 센터(The Delaware Valley Intelligence Center, 이하 DVIC)’는 지역 내 주요 위험 요소들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융합센터 역할을 한다. 이에, DVIC는 메모리얼 플라자의 영상 보안 요건을 평가했고, 이러한 DVIC의 권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스템 통합업체 ‘컨버진트 테크놀로지(Convergint Technologies, 이하 컨버진트)’가 이들의 요구에 맞는 영상보안 솔루션을 제안했다.

Solution

메모리얼 플라자와 공원은 큰 규모로 인해 한화테크윈의 고해상도 4K 네트워크 IR Bullet 카메라인 ‘PNO-9080R’를 설치했다. 해당 카메라는 뛰어난 해상도로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4K를 비롯한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수는 아니지만, 컨버진트社は 메모리얼 플라자와 공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4K 카메라 외에도 5메가픽셀 네트워크 IR Bullet 카메라 ‘XNO-8080R’도 설치했는데, 이 카메라는 IR 기능을 통해 주야간 전 시간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자동 추적 및

음원 분류는 물론 배회, 방향, 안개 감지는 물론 템퍼링, 오디오 감지 등의 지능형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해당 카메라들은 '제네텍 시큐리티 센터(Genetec Security Center)'의 영상 관리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VMS)에 연결해 재단과 현지 경찰서의 공인된 관리자가 언제든지 로그인 해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Result

호위츠-와스어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플라자는 반유대주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실제로 한 남성이 나치 친위대의 상징으로 알려진 로고를 기념비 기둥에 새겨 넣어 플라자를 훼손한 것이다. 하지만 범인은 한화테크윈 보안 솔루션의 도움으로 재빨리 검거되었다.

재단 프로젝트 매니저 제니퍼 라이트(Jennifer Wright)는 “한화테크윈 카메라가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선명한 영상을 통해 범인을 여러 각도에서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은 필라델피아 경찰서에 전달되어, 언론 보도 자료로 활용되었고 SNS 상에서도 사건 영상이 수천 번 공유되었다. 해당 자료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궁극적으로 용의자에 대한 확실한 신원 확인이 이뤄졌다.” 고 전했다.